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백남일 선교사님께서 프랑스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L'escale** 이라는 작은 장소가 프랑스 대학 근처에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으로 2년 6개월 전에 시작된 백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한 곳이다. 그 장소는 20명이 다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공간이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으며, 찬양의 소리가 있는 작은 공간이다. 빠리(Paris)의 바쁨과 비좁음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며칠 전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2년여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날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많이 달랐다. 가구 배치와 상황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나에게 전해진 느낌은 너무 따뜻하고, 마음을 열수 있으며, 오래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선교사님께 질문을 해 보니,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을 설명해 주신다.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대접 받고 대화를 시작하며 그들이 쉬었다가 가는 공간이라고 하신다. 그 쉬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고 적당한 시간에 그들에게 성경 구절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장소라고 하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가 됨으로 그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복음을 듣기에 충분한 마음으로 돌려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연결하는 사역이었던 것이다. 그곳을 지나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의미를 잃은 자들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자들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찾아와 후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선교의 결과가 눈으로 나타나는 일이 못될 수도 있고 또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나 선교 적이고 복음적인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긴팔을 그 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가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한다.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그 작은 공간에 가득했다고 한다. 그 날 방석들을 시작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두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장소는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곳은 나와 같은 여행자가 한 번 찾아 갔어도 훈훈했던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장소다. 긴 사람의 말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다.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 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은혜 받는 곳이었다.

나는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다.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바로 그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동안 많이 보아 왔던 일들을 뒤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오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10여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다. 모두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사역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 또한 동일한 주신 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맡겨 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자. 이 비전이 결코 바뀌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성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